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그의 학술사상

허 죽 송*

사상의학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학의 기초위에서 중의학의 이론을 흡수하고 《천, 인, 성, 명》(天, 人, 性, 命)의 정체관을 리론기초로 하여 《사유지사상》(四維之四象) 결구와 변상론치를 주요내용으로 한 독특한 의학과학체계이다.

리제마는 『동의수세보원』에서 중의고전의적에 대해 매우 심각한 평가를 가하고 그의 정미를 섭취하여 체계적인 사상의학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학술사상은 《령추》《소문》에서 기원되었다고 본다. 그는 음양학설을 특별히 중시하여 음양상호연계의 리론에 근거하여 음과 양은 분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자생(資生)기능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동의수세보원』에는 《태소(太少)음양의 장국(臟局)의 단장(短長)은 음양의 변화》라고 하였다. 사상의학은 음양상호대립의 변화에 근거하여 사람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나누었다. 정확하게 변상(辨象)하려면 우선 음양을 똑똑히 밝혀야만 체질의 본질을 정확히 판단하여 정확한 변상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리씨는 『동의수세보원』에서 《폐가 크고 간의 작은 사람을 태양인이라 하고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사람을 태음인이라 하며 비가 크고 신의 작은 사람을 소양인이라 하고 신이 크고 비가 작은 사람을 소음인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장기 대소의 음양 편성(偏盛)과

편쇠(偏衰)는 질병이 발생하고 발전하는 근본 유인으로 된다. 때문에 정체관과 변상론치를 정확히 활용하여야만 립상치료의 립법, 처방, 약물을 정확히 선택하여 《큰것은 사하고 작은 것은 보.》(大者瀉之, 小者補之)하는 치료원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경』의 《유여한 것은 삭이고 부족한 것은 보한다.》(損其有餘, 補其不足)는 음양 편성, 편쇠의 치료원칙과 서로 융합되는 것이다. 때문에 음양을 조정하여 음양의 상대적 평형을 회복하는것은 사상의학의 기본 치료원칙이고 음양은 서로 의존(依存)하며 서로 조절하여야 한다는 것과 치료상의 구체적 응용이라고 인식하여야 한다.

리씨는 고전의적에 구애하지 않고 오지(五志)와 사상인을 밀접히 연결시켜 새로운 사상의학의 론점을 제기하였다. 즉 『동의수세보원』에서 《태양인은 애성(哀性)은 원산(遠散)하면 기(氣)가 폐로 주입(注入)되어 폐는 더욱 성(盛)하고 노정(怒情)이 촉급(促急)하면 기가 간을 격동(激動)시켜 간을 더욱 짝이울 것이니 태양(太陽)의 장국(臟局)이 폐대(肺大) 간소(肝小)로 형성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소양인은 노성(怒性)은 평포(宏抱)하지만 애정(哀情)은 촉급(促急)하니 노성이 평포하면 기가 비로 주입되어 비(脾)는 더욱 성하고 애정이 촉급하면 기가 신을 격동시켜 신(腎)은 더욱 짝이울 것이니 소

* 연변의학원 국제중의학부

양의 장국이 비대(脾大)신소(腎小)로 형성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태음인은 회성(喜性)은 광장(廣張)하지만 락정(樂情)은 촉급하니 회성이 광장이면 기가 간으로 주입되어 간은 더욱 성하고 락정이 촉급하면 기가 폐를 격동시켜 폐는 더욱 깎이울 것이니 태음의 장국이 간대 폐소로 형성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소음인은 락성은 길게 굳어지지만 회정은 기가 비를 격동시켜 비는 더욱 깎이울 것이니 소음의 장국이 신대 비소로 형성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애노(哀怒)는 양에 속하고 희락(喜樂)은 음에 속하므로 태양인은 폐가 성하여 양중지양(陽中之陽)이 성한 것으로 태양이라 하고 소양인은 비가 성하여 양중지음(陽中之陰)이 성한 것으로 소양이라 하고 태음인은 간이 성하여 음중지음(陰中之陰)이 성한 것으로 태음이라 하며 소음인은 신이 성하여 음중지양이 성한 것으로 소음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태, 소, 음, 양인의 장국의 음양변화의 도리를 설명한 것이다. 또한 리씨는《애노(哀怒)는 서로 이룩하고 희락(喜樂)은 서로 돕나니 애성(哀性)이 지극하면 노정(怒情)이 동(動)하고 노성(怒性)이 지극하면 애정이 동하고 락성이 지극하면 회정이 동하고 회성이 지극하면 락정이 동한다》라고 하였다. 리씨는 음양은 정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립되는 음양의 쌍방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서로 상반(相反)되는 방향으로 즉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전화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을 중의학에서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 하였다.

리씨는 《천, 인, 성, 명》(天, 人, 性, 命)의 정체관은 사람과 자연계, 사회(社會)시간에 직접 통일적인 정체를 형성하였다고 강조 하였다. 그는 『동의수세보원』에서 《천시(天時)는 공존성인 강(綱)에 속하고 사무(事務)는 개체성인 목(目)에 속하며 세회(世會)는 대동(大同)한 것이요 교우(交遇)는 각립(各立)하는 것이며 인륜(人倫)은 대동한 것이요 당

여(黨與)는 각립한 것이고 지방(地方)은 대동한 것이며 거처(居處)는 각립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자연계에 존재하므로 모순되고도 통일적인 정체를 형성하는 바 자연과 사회는 사람의 생존할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고 또한 자연과 사회의 부단한 운동변화는 필경 사람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상응되는 유기체의 기능성 기질성 또는 심리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설명한다. 인류자신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환경조건과 사회인소를 조절하려면 리씨는 《자연계에서 인생을 내실 때에 자연성품 마음바탕이 총명하고 영리하고 밝게 깨닫게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연히 수족으로 동작하여 근실한 사업을 하게 한 것이다. 천하의 만민의 생활하여 나가려면 자본과 기업체가 있어야 살고 없으면 죽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위 《자업》(資業)이란 활동과 노력과 실행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오직《혜각》(慧覺)이 있어야만 이런 극대(極大)한 세회(世會) 즉 천하세계를 인식하고 인륜(人倫)도덕을 지키고 아득한 자연계를 개조하며 계속 생존할수 있는 것이다.

이씨는 사상인론을 기초로 하여 《오장의 심은 중앙의 태극(太極)이요 오장의 폐, 비, 간, 신은 사유(四維)의 사상(四象)이라》는 사상의학 이론의 독특한 《사단론》(四端論)관점을 제기 하였다. 귀씨의 오장설(五臟說)은 오행설(五行說)에 의한 동격의 오장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심은 중앙지태극(中央之太極)으로서 폐, 비, 간, 신의 사유를 주재(主宰)하는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의학의 장부론의 특징을 장부가 소속한 부위를 사초(四焦), 사장(四臟), 사부(四腑), 사해(四海), 사기(四氣), 사당여(四黨與)로 획분하였다. 하여 비교적 완전하고 계통적인 독특한 이론체계를 형성하였다.

이씨는 장중경의 학술관점에 대하여 그의 장점은 흡수하고 발양하였지만 완전히 본 을 딛것은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이론을 더욱 풍부히 하였다. 『동

의수세보원』은 《육경병증에서 삼음경병증은 모두 소음인 병증에 속하고 소양경병증은 소양인의 병증이다. 태양경병증, 양명경병증은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의 병증이 모두 있는데 그중 소음인의 병증이 가장 많다.》고 하였다. 또한 《기백(岐伯)이 쓴 술한 거양(巨陽), 소양, 소음경의 병증은 모두 소양인의 병이고 양명, 태음경병은 모두 태음인의 병이며 췌음경병은 소음인의 병이다》고 하였다. 치료방면에서 《약은 사람의 체질에 국한한다》는 사상 의학의 독특한 약성관(藥性觀)을 제기 하였다. 그는 자고로 부터 역대의 의학자들은 다만 《약은 반드시 증(證)에 따른다.》고만 주장하였지 《약은 사람에 따른다.》는 치료원칙을 실시 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약물은 상(象)에 귀결되고 상에 따라 약물을 선택하며 변상론치하여 증후(證候)에 따라 가감(加減)하여야 한다》는 독특한 용약 원리를 창립하였다.

사상 의학은 백여년간의 임상실천을 경과한 력사

를 지니여 조선 의학의 독특한 법, 방, 약의 변상론치의 의학이론체계가 있지만 아직 변상의 객관 이론근거 병리기전 방약의 기전 등 방면에서 똑똑하지 못한 점들이 있다. 때문에 반드시 자기 민족 의학의 과학연구와 임상실천을 통하여 사상 의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기여하여야 한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 東醫四象大典, 5~79.
2. 延邊民族醫研究所, 朝醫學, 59~86.
3. 李濟馬, 四象醫學原論, 78~92.
4. 中國醫學百科全書—朝醫學, 6~13.
5. 송일병, 알기쉬운 사상 의학, 23~38.
6. 杏林書院, 東醫思想診療醫典, 27~52.
7.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15~67.